

레이크엘이디, LED용 TMG 국산화

12월 충남 전의산업단지 24톤 공장 가동 ... MOCVD 양산계획도 추진

레이크엘이디(대표 김진동)가 LED 소재인 TMG(Trimethyl Gallium) 양산에 돌입해 국내시장의 수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ED(Light Emitting Diode) 전문기업인 레이크엘이디 2010년 12월부터 LED의 핵심소재인 TMG 양산에 들어간다고 10월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지방산업단지에 24톤 공장과 본사 사옥 등을 마련했다.

그동안 LED의 핵심소재인 TM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세계적인 LED 수요 증가로 국내기업들이 TMG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레이크엘이디는 또 TMG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2011년 말까지 또 다른 LED 소재인 MOCVD(금속유기화학물 화학기상증착) 등도 양산할 계획이다.

레이크엘이디 김진동 대표는 “미국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전문기업인 ATMI로부터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며 “LED 생산의 장애요인이던 TMG의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01>